



NEWS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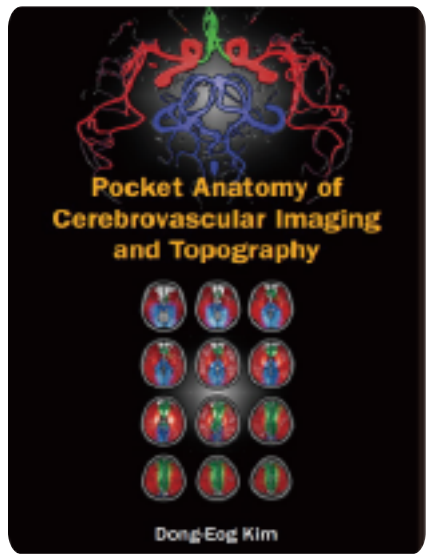
2020년 4월 27일 Vol. 368

신경과 김동억 교수, ‘뇌혈관계 영상 해부학 저서’ 해외 출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동억 교수(국가참조표준센터 한국인 뇌 MR영상데이터센터 센터장)가 최근 ‘뇌혈관계 영상 해부학 아틀라스 (Pocket Anatomy of Cerebrovascular Imaging and Topography)’를 자연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출판사인 월드 사이언티픽(World Scientific)’을 통해 발간했다.

김 교수는 구축한 자료를 이용해 한국인 허혈뇌지도, 고해상도 뇌혈류 영역 지도, 뇌경색 부피 참조표준 도판 등을 개발했으며, Stroke, Brain, JAMA Neurology 등 국제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해 왔다. 뇌졸중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하버드 의대 신경과 카플란 교수는 “이 책이 꼼꼼하고 우아(meticulous and elegant)하며, 뇌졸중 환자의 진료와 뇌신경혈관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추천사를 머리말에 기록했다.

김 교수는 “신경과 레지던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가운에 넣고 다니며 보던 (외국 저자 저술) 포켓 아틀라스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강한 이 책이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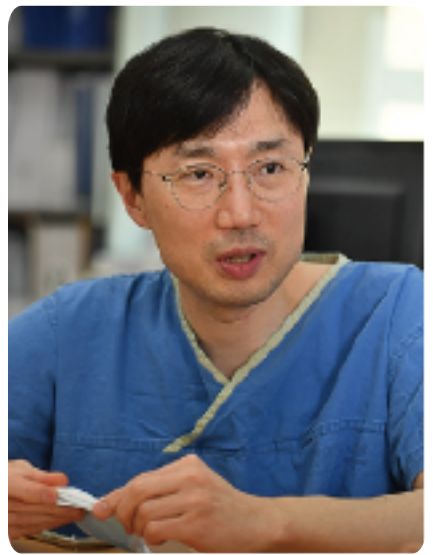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 원내감염 막기 위해 최선

지난 4월 13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관리실장 정재우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가 불교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일심으로 노력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정 교수는 병원이 현재까지 안심병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들을 비롯해 병원 교직원들이 자기희생을 해준 덕분”이라고 했다. 각자 맡은 역할 이상으로 헌신해준 교직원들이 있어서 원활하게 병원이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철저한 개인위생을 당부하며,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예년보다 빠르게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해제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기침 예절을 지키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킨다면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불교신문 인터뷰 중



신임 지도법사 능지 스님 부임

지난 4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법당에 신임 지도법사 능지 스님이 위촉됐다.

새로 부임된 능지 스님은 앞으로 고된 치료를 견디는 입원 환우들의 건강 발원 예불과 병상 생활의 고민 상담, 호스피스 병동 임종 기도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불 및 정기 법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지도법사 능지 스님은 “법당은 환자뿐만이 아닌 교직원 모두에게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휴식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업무를 하다보면 지치고 힘들고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이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믿음’이니, 부처님 품 안에서 불심으로 마음을 다스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91세 노보살,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며 의료진에 복주머니 전달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지난 4월 13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법당에서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복주머니 200개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능학 스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지도법사 능지 스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진영숙 간호부장이 참석했다.

복주머니 후원자는 올해 91세를 맞이한 안효범 어르신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하고 힘을 드리고자 복주머니를 제작하게 됐다.

안효범 어르신은 간호사 한 명 한 명에게 손수 만든 복주머니를 전달하며 “복주머니라도 만들어 드리면 힘이 나실 것이라 생각해 만들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